



NEWS LETTER

2019년 8월 12일 Vol. 350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격려 방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 스님이 7월 30일 무더위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했다.
지난 7월 18일 취임식 이후 공식적으로 첫 방문인 이사장 법산 스님은 무더운 여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떡과 수박, 복숭아 등 과일 100 박스를 선물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모두 찰떡같이 행복하게, 콩떡같이 고소하게 함께 어우러져 서로 화합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맛있는 과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부처님 말씀을 믿고 새기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동 간호팀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상황사례’ 공유의 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 간호팀은 7월 29일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상황사례 공유의 장’을 진행했다.
병동 간호팀은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황 사례 공유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경과 류위선 교수가 뇌졸중 중증도 측정도구(NIH stroke scale)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사정 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윤호상 주치의는 NIH stroke scale을 이용해 뇌졸중 환자를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호사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뇌졸중 중증도 측정도구 이용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며 교육을 해주니 이해가 쉬웠고 재미있는 강의였다.”라고 말했다.



부처님 세상 지키는 ‘어벤져스’, 진관사 자녀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불자연우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어벤져스’ 진관사 어린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어벤져스 부처님 10대 제자 사관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과 놀이 등을 접목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템플스테이다.
아이들은 부처님 10대 제자의 이름을 딴 팀을 만들어 아라한이 돼 탐 · 진 · 치라는 악당으로부터 지혜의 씨앗을 지키고, 아라한의 덕목과 자세를 배우고 익히며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지도법사 덕유 스님을 비롯해 교직원과 자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박 2일 동안 108배등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스토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외래 간호사 중 다리를 다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출퇴근을 하거나 식사 또는 화장실 이동이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해하는 동료에게 함께하는 팀원들이 한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팀원은 출퇴근길에 휠체어를 빌려왔으며, 화장실 동행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것은 근무복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김스했기 때문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근무복이 맞지 않아 다리는 조이고 더운 여름 땀까지 차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를 본 동료 간호사는 근무복 바지 옆선에 지퍼와 리본 끈을 달아 생활에 불편함 없이 근무복을 리폼해 주었으며, 서로 돕는 훈훈한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를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막과 정글이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길동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생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다쳐 힘들어하는 동료 간호사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 전 읽었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근무 역시 멀고 먼 힘겨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 그 길의 종착지까지 웃으며 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